

| Advertorial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의 한국 학생 인터뷰

“학생들 능동적으로 이끄는 강사진 능력이 제일 큰 장점”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희 씨(SK 플레닛 근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문화원의 특별한 교육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 공부하기 어떠세요?

한국에서는 늘 미국식 영어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약간씩 다르고 하여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어수업을 들으면서 전세계 다국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의 강단법이 있다면?

영국문화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강사진들의 교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며,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동적으로 앉아있게 두지 않습니다. 이곳의 강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문화원에 오기 전에 다른 어학원에서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접한 강사들은 텍스트북을 읽고 같이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적만 올리면 되는 거라면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것도 영국문화원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싱가포르가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양한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80%가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인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학원에 있던 많은 아시아계 친구들이 영국문화원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간에도 서로서로 배우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과 공부하는가 하는 것도 학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 경우는 현재, 세계 12개국에서 온 16명의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와 차이점에 대해 배우고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현실에서 우리가 미국인이나 영국인 과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만나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중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처음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만, 전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별도의 ‘쓰기 수업’을 듣는 등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레벨 테스트를 보았을 때는 제 예상보다 더 낮은 결과를 받았는데, 그때도 제 정확한 레벨을 알고 싶어서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고 결국 저에게 더욱 적합한 수준의 클래스에 배정될 수 있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 시험을 쳤을 때 더 높은 레벨의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의 말하기 테스트 같은 도움이나 추가 레슨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학교에 문의 드렸고, 늘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분들께도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국문화원에서의 추억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Cultural Fair in British Council’라는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저는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한국의 돌잔치 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British Council Cultural Fair 2013’이라는 타이틀로 검색하면 행사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아마도 코리안프레스 독자 분들 중에는 심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아줌마’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 영국문화원에서 공부하면서 심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만났고,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 분들이 한인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온, 더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문화원의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며 강사들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영국문화원을 싱가포르 최고의 영어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어 학원으로 영국문화원을 정하신다면, 이곳의 프로그램을 100% 이용하시고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요청하셔서 꼭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